

학생_수기-5

학업중단 예방 사례 응모분야						
지도자 및 교원				학생		
				■		
사례명	상처 속에서 피어난 희망, 그리고 새로운 시작					
응모자	학교	○○○○○고등학교	학년		성명	○○○
학업중단 위기원인	학교 부적응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참여 일자(기간)	22.05.09~22.05.22.(2주), 23.04.14.~12.21.(3회), 24.07.02(1회)					
<p>어릴 적 나는 공부에 있어서 특별히 뛰어나지 않았지만, 규칙과 질서를 지키는 데는 자신이 있었다. 항상 모든 일을 계획하고, 정해진 틀 안에서 생활하는 것이 편안했다. 하지만 중학교 2학년 때, 나에게 예상이 못한 일이 일어났다.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하게 된 것이다. 그 순간, 나는 이전의 나 자신이 더 이상 세상에서 나를 지키기에 충분 하지 않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그때부터 나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는 강해져야 한다고 믿기 시작했다. 그렇게 나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다. 거칠고, 아무도 쉽게 다가오지 못할 만큼 냉정하고 무서운 아이로 변하기로 했다.</p> <p>그러나 이 변화는 내 삶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 중학교 시절 너무 거칠어져 있는 나는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학교 생활이 너무 두려워지기 시작했고, 적응하기가 점점 어려워졌다. 교실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두려움이 몰려왔고, 점점 학교를 빠지는 날이 많아졌다. 그런 나날들이 이어질수록 나는 더 강한 척, 더 센 척을 하며 나 자신을 보호하려고 애썼다. 하지만 그럴수록 내 마음은 점점 텅 비어갔고, 매일이 공허하고 우울한 느낌만이 남았다.</p> <p>내가 느꼈던 그 공허함과 우울함은 너무나도 컸다. 그래서 나는 힘든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매일 약을 먹고, 잠을 포기하며 놀기만 했다. 친구들과의 만남 속에서 나는 무의미한 밤을 지새우며 즐거움을 찾으려 했지만, 그럴수록 더 우울해지고 공허함은 깊어졌다. 왜 이런 감정이 드는지, 왜 이렇게 허전한지 알 수가 없었다. 그래서 더 열심히 놀아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내 마음의 상처는 더욱 깊어져만 갔고, 나는 점점 더 무너져갔다.</p> <p>그 시절은 너무나도 힘들었다. 나는 내 아픔을 이해해 줄 누군가가 필요했다. 그래서 상담을 다니기 시작했지만, 그곳에서도 내 진짜 마음을 털어놓을 수가 없었다. 자해를 해보기도 했고, 유서를 써보기도 했지만, 그 모든 것도 나를 구원 해주지는 않았다. 아무도 내 아픔을 제대로 이해해 주지 않는 것 같아 절망스러웠고, 더 이상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았다. 방황과 고통 속에서 나는 여전히 헤매고 있었다.</p>						

그러나 고등학교 2학년에 올라오면서 나는 변화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고, 내 인생을 바꿔보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학업 중단 위기까지 갔지만, 숙려제를 통해 학교에 복귀하면서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다. 학교에서 실시하는 학업 중단 예방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공예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처음으로 차분히 앉아 무언가 만드는 경험을 했다. 떡 케이크를 만들고 크리스마스 트리를 꾸미며 완성된 작품을 바라 보는 순간들은 내게 깊은 치유의 시간을 선물해 주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담당 선생님과 나는 대화는 나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고 그로 인해 나는 비로소 나 자신을 돌보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고 점차 나 자신을 이해하면서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다. 나쁜 친구들과의 연락을 끊고, 센 척을 하지 않아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과정은 내게 큰 전환점이 되었다. 처음에는 학교에 가는 것조차 두려웠던 내가, 이제는 친구들과 함께 웃을 수 있었고, 진정으로 행복함을 느낄 수 있게 되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학교에 가는 생각만으로도 불안과 공포에 떨었지만, 이제는 학교를 다니는 것이 자연스럽고 편안해졌다. 불안과 우울에 시달리던 내가, 어느새 남의 시선에 신경 쓰지 않고 대학을 준비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고는 스스로도 놀라울 따름이었다.

고등학교 졸업만을 목표로 하던 내가, 이제는 학원에 다니며 대학을 준비하고 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럴 때마다 옆에서 묵묵히 기다려주고 따뜻한 조언을 해주는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있기에 나는 점점 나아지고 있다. 자해를 참고, 나쁜 친구들과의 연락을 끊고, 좋은 말과 행동을 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나는 점점 더 긍정적인 변화를 체감하고 있다. 물론 아직도 학교 생활에 완전히 적응하지는 못하고 다른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제자를 구해보겠다는 선생님의 꾸준한 조언과 가르침을 되뇌이며 변화를 위해 노력해 온 자신과 지각을 하더라도 학교에 등교하여 꾸준히 학업을 이어가며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그동안 나는 나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기 위해 심리학 도서를 접하고 있다. 그 과정을 통해 나는 나 자신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스스로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극복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도 깨달았다. 하지만 나를 진심으로 챙겨주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힘들 때 그들에게 기대고, 그들도 나에게 기대며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함께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을 느꼈다.

이렇게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오고 나니, 나는 비로소 진정한 나 자신을 찾을 수 있었다. 지금 나는 더 밝은 미래를 꿈꾸며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다. 바람이 있다면 내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놓인 다른 학생들에게도 용기와 희망을 주길 바란다. 그들이 나처럼 자신을 잃지 않고,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며 내가 깨달은 가장 큰 교훈은, 힘든 시간을 버티는 것이 혼자서는 어렵다는 것이다. 함께 성장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나를 지탱해 주었다. 그래서 나 역시 누군가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존재가 되고 싶다. 힘든 시간 속에서도 곳곳이 나아가며, 그 끝에서 마주할 따뜻한 빛을 믿기를 바란다.